

## 힘겨운 민주화의 길 ... '1980 광주'와 '2019 홍콩' 잔혹한 님은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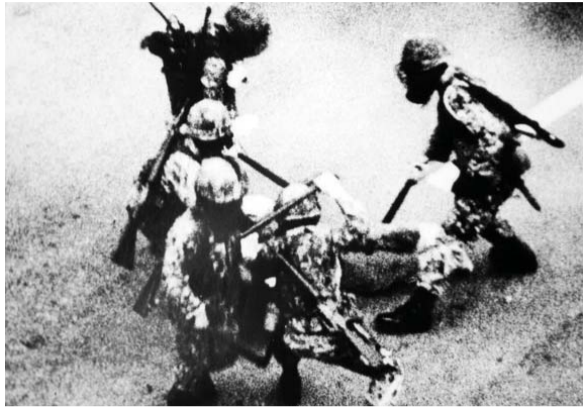
1980년 5월 광주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이 시민 박남규씨를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8일(현지시각) 홍콩 이공대에 진입한 경찰이 안전모를 쓴 시위학생을 진압봉으로 구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닮아 가고 있다.

5·18항쟁 당시 시민을 진압봉으로 때리거나 집단 폭행하는 계엄군의 사진과 2019년 홍콩 시위 과정에 경찰이 시민을 때리고, 의식을 잃은 시민을 끌고 가는 사진이 40년의 시간 간격에도 불구하고 판박이 다.



1980년 5월 18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계엄군 5명이 쓰러진 시민을 집단폭행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18일(현지시각) 홍콩이공대에 진입한 경찰이 쓰러진 한 시위자의 손을 결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 5·18, '아시아 민주화의 교과서' 됐다

대만, 국가차원 5·18 행사...홍콩 시민단체 내년 기념식 참석  
아시아 각국 민주화 운동의 롤모델로 ... '5·18 세계화' 성과

내년 40주년을 앞둔 5·18민주화운동이 아시아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대만이 국가 차원의 5·18 행사 개최를 공식 요청하고, 홍콩 민주화시위의 핵심단체가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오월항쟁이 민주화를 갈망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5·18항쟁의 전개과정과 이후 민주화를 이룬 한국 현대사 등이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세력과 단체들에게 롤모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5·18기념재단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에 따르면 다음달 8일~22일까지 대만 국회 입법원에서 '전국의 5·18' 대만특별전시회가 열린다.

5·18 행사가 국가 수준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5·18전시회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가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진행되거나 5·18 재단과 단체들이 해외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것이 전부다.

대만 국회 측이 5·18전시회를 초청한 이유는 대만 정부와 국회가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 40주년을 기념하고 과거사 정리 실태를 돌이켜 보는 과정에서, 5·18민주화 운동의 과거사 청산 경험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리다오 사건'은 1979년 12월 10일 '국제 인권의 날' 당일 '메이리다오' 잡지사 직원들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가오슝(高雄) 시에서 계엄령과 타 정당 활동 금지에 반대하며 민주와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 중 경찰과 시민이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주요 민주 인사 대부분이 사법처리됐다.

대만 정부위원회인 '전환기 정의추진위원회' 소속 장관·국회의원·위원 9명이 지난 6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린 '전국의 5·18' 특별전을 관람 후, 대만 전시의 필요성을 인식해 초청 전시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만 국회 관계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단순한 항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사 진상조사가 전면적으로 진행되며 관련 유적이 보존되고 있으며, 기념행사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을 받아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그동안 '메이리다오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군사 재판에 대한 체계적·전면적인 진상 규명 등이 없었던 점 등을 되새기는 한편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과 진상 규명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2019 국민과의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삼삼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앞서 사회자인 가수 배철수 씨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만 국회에서 열린 '전국의 5·18' 전시회에서는 ▲1980년 5·18 10일간의 전개과정 ▲5·18 진상규명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목숨을 던진 1980년대 열사 130명을 소개하는 사진과 영상 ▲현재까지 진행된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 등의 과정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홍콩 민주화 시위의 핵심 단

체인 홍콩 민간인권전선은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대표단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 측과 5월 단체들은 홍콩 민주화운동 관계자들의 광주 방문 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5·18기념재단과 단체들이 세계화를 이

기해왔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끊임없이 아시아의 인권활동가들을 초청하고 광주 인권상을 수여하는 등 손길을 보내왔던 그 응답이 온 것 같다"면서 "5·18의 정신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가들과 민주주의의 이행기에 있어 과거정산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 초석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진상규명 신청 기한 변경  
법 시행일부부터 1년에서  
조사위구성 후 1년 이내로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 규정을 변경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의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 만료됨)'로 규정된 기한 규정을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최근 3명의 진상조사위원 추천을 마무리함에 따라 연내에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지리산에 첫 눈

반짝추위 22일부터 풀려

19일 지리산국립공원 노고단에서 첫 눈이 관측됐다.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부터 노고단 일대에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19일 눈이 그쳤지만 산 전체에 하얀 설경이 펼쳐졌다.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관계자는 "겨울철 눈이 내린 산을 찾을 때는 방한복과 미끄럼 방지장비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추위는 22일부터 점차 평년(최저기온 0~6도·최고기온 11~15) 기온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